

KBO, 골든글러브 후보 45명 발표

시즌 출장 경기수·투구·공격·수비·성적 등 반영 각 포지션별 기준 따라 선정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KBO 리그 각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하는 2016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이 될 후보 45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골든글러브 후보는 올 시즌 출장 경기수와 투구, 공격, 수비 성적 등을 반영해 각 포지션별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동으로 후보에 포함된다.

투수 부문은 평균자책점이 3.40 이하 이면서 15승 이상 또는 30세이브 이상 거둔 선수가 후보다.

투수 부문은 평균자책점 승률 1위, 보우런(탈삼진 1위), 장완준, 넥센 김세현(세이브 1위), 이보근(홀드 1위), KIA 헤터 등 6명이 후보에 올랐다.

포수 부문은 96경기 이상 포수로 출전하고 타율이 0.290 이상인 투수 양의지, SK 이재원, 삼성 이지영이 후보로 선정됐다.

야구는 해당 부문에서 수비로 96경기

이상 출전, 규정타석 이상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고 타율은 각 포지션별 성적에 따라 정했다.

1루수, 2루수, 3루수는 타율이 0.310 이상인 선수들이 후보에 들었다.

1루수 후보는 두산 오재일, NC 테임즈(장태용, 홈런 1위), KIA 필, 삼성 구자욱 등 4명이다. 2루수는 NC 박민우, 넥센 서건창, SK 김성현, 한화 정근우(득점 1위), kt 박경수 등 5명, 3루수는 KIA 이범호, SK 최정(홈런 1위), 한화 송광민 롯데 황재균 등 4명이다. 유격수 부문은 타율이 0.280 이상으로 두산 김재호, 넥센 김하성, LG 오지환, SK 고재우가 후보로 선정됐다.

3개의 골든글러브가 주어지는 외야수 부문은 타율 0.310 이상인 선수로 두산 김재환, 민병헌, 박건우, 넥센 고종욱, LG 채은성, KIA 김주찬, 최형우(타율 타점 안타 1위), SK 정의운, 한화 이용규, 롯데 김문호, 손아섭, 삼성 박해민(도루 1위), kt 유한준, 이대형까지 총

14명이 후보에 올랐다.

지명타자 후보는 지명타자 포함 96경기 이상 출전하고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중 타율 0.300 이상을 기록한 두산 에번스, LG 박용태, KIA 나지완, 한화 김태균(출루율 1위), 삼성 이승엽 등 5명이다.

이들 45명의 후보 중 양의지, 이승엽은 2014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을 노린다. 테임즈, 김재호, 유한준은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한다. 지난해 지명타자 부문 수상으로 골든글러브 최고령 수상 신기록(39세3개월20일)을 세운 이승엽은 다시 한 번 기록을 경신할지 주목된다.

최형우는 FA 계약으로 팀을 옮겨 KIA에서 2014년 이후 2년 만에 골든글러브 수상을 노리게 됐다.

시즌 종료 후 팀을 옮긴 선수 중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경우는 역대 8명이 있었다.

FA 이적 후 수상은 1999년 김동수(LG

→삼성), 2004년 박진만(현대→삼성), 2008년 홍성흔(두산→롯데), 2013년 정근우(SK→한화), 지난해 박석민(삼성→NC), 유한준(넥센→kt)까지 6명이다. 1993년 김광림과 한대회는 각각 OB에서 쌍방몰, 해태에서 LG로 트레이드 이후 수상했다.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5~9일 오후 5시까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취재기자들과 사진기자, 중계 담당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투표인단에게 개별 발송된 이메일과 모바일로 투표가 가능하다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

2016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4시 40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컨벤션 센터 2층)에서 거행되며, 지상파 TV MBC와 인터넷 네이버, 다음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민근기자

분데스리가 지동원, 중거리 슛 시즌 3호골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지동원이 화려한 중거리 슛으로 시즌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지동원은 5일(한국시간)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의 WWK 아레나에서 열린 2016~2017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전반 34분 동점골을 뽑아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11분 만에 브라니르 호르도에게 선제골을 빼앗겼다.

동점골의 주인공은 지동원이었다. 지동원은 전반 34분 코너킥 상황에서 공이 뒤로 흐르자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골키퍼가 타이밍을 빼앗겨 몸도 던지지 못한 정도로 완벽한 슛이었다.

지동원이 득점을 올린 것은 10월1일 라이프치히와의 분데스리가 6라운드와 같은 달 27일 바이에른 뮌헨과의 DFB 포칼 2라운드(32강전)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최전방에 배치된 지동원은 이후에도 여러차례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공격을 주도했으나 추가골을 얻지 못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프랑크푸르트와 1-1로 비겼다. 승점 14(3승5무5패)로 12위다.

/김민근기자

양홍석·박지수 '올해의 농구인' 남녀 수상자 선정

양홍석과 박지수가 '2016년 올해의 농구인' 남녀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세일 군산고 감독은 지도자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대한농구협회는 5일 협회 및 산하 단체 협회 경기력 향상위원회, 대학 농구 감독, 취재기자 등 60명의 투표로 뽑은 '2016년 올해의 농구인' 수상자를 발표했다.

중앙대 입학 예정인 양홍석은 전국체전 우승을 포함해 부산중앙고의 3개 대회 우승을 이끌었다. 1992년 2관왕 이후 학교 최고 성적이었다.

양홍석은 17세 이하(U-17) 대표팀에서 활약한 이정현(군산고), 최준용(서울 SK)과 경쟁 끝에 26표를 획득해 수상자로 뽑혔다. 여자 부문은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청주 KB국민은행 유니폼을 입은 박지수가 선정됐다. 그는 성인대표팀에 포함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최종예선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18세 이하(U-18)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도 대표팀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

박지수는 30표를 획득해 소속팀 선배인 강아정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오세일 감독은 리우올림픽 여자 농구 최종예선에서 지휘봉을 잡은 위성우 아산 우리은행 감독을 1표 차로 제치고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민근기자

이승훈·김보름,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매스스타트 동메달

이승훈, 이번대회 동메달로 월드컵 랭킹 1위 차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강자' 이승훈(28·대한항공)과 김보름(23·강원도청)이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에서 단란히 매스스타트 동메달을 땀다.

이승훈은 5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7분34초79를 기록, 전체 16명 가운데 3위에 올랐다.

지난 월드컵 2차 대회 아쉬움을 털어내는 메달이다.

올 시즌 첫 월드컵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은 월드컵 2차 대회 매스스타트에서는 16위에 머물렀다.

이승훈은 이번 대회 동메달로 랭킹 포인트 70점을 더해 총 240점을 기록한 김보름은 280점을 기록 중인 이바니 블롱탱(캐나다)에 이어 월드컵 랭킹 2위를 달렸다.

블롱탱이 8분29초28을 기록해 여자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다카기 나나(일본)가 8분29초46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한국 남자 단거리 기대주 김태윤(22·한국체대)은 남자 500m 디비전A에서 34초785를 기록해 하세가와 쓰바사(일본)와 공동 5위에 올랐다.

100분의1초 단위까지 갈을 경우 1000분의1초 단위까지 살펴보고 순위를 정하는데, 김태윤은 하세가와와 1000분의 1초까지 똑같았다.

남자 500m 금메달은 34초52를 기록한 루슬란 무라소프(러시아)가 가져갔다.

남자 500m 디비전B에서 나선 모태범(27·대한항공)은 35초37의 기록으로 11위에 머물렀다.

김민선(17·서문여고)은 여자 500m 디비전A에서 38초38로 결승선을 통과해 전체 19명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함께 출전한 박승희(24·스포츠포토)는 39초10을 기록해 17위에 그쳤다.

메달 획득이 기대됐던 빙속 여제 이상화(27·스포츠포토)가 감기 몸살로 불참한 가운데 여자 500m 금메달은 37초64를 기록한 위징(중국)의 차지가 됐다. 쓰지마키, 가미야 에리나(이상 일본)가 각각 37초82, 37초88을 기록해 은메달과 동메달을 쓸어담았다.

여자 500m 디비전B에서 레이스를 펼친 남예원(21·경희대)은 39초61을 기록해 8위에 랭크됐다.

남자 1500m 디비전A에서는 장거리 유망주 김민석(17·평촌고)이 1분46초98을 기록해 20명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 디비전B에 나선 김진수(23·의정부시청)는 1분48초59의 기록으로 9위에 머물렀다.

박지우(18·의정부여고)는 여자 1500m 디비전B에서 1분59초95를 기록해 6위에 이름을 올렸다.

함께 나선 노선영(27·강원도청)은 2분



이승훈은 5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 결승에서 7분34초79를 기록, 전체 16명 가운데 3위에 올랐다.

02초56에 그쳐 17위로 밀렸다.

/김민근기자

대한체육회, 학교체육 발전 포럼 7일 개최

대한체육회는 7일 오후 2시 올림픽파크텔에서 학교현장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진단하고, 향후 학교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6 학교체육진흥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회를 비롯한 문체부와 교육부, 학교체육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손천택 인천대학교 교수가 '대한민국 백년지대계 학교체육, 갈 길을 찾다'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한다. 경기도 교육청 황교선 장학관이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의 나아갈 길', 전웅관 연세대학교 교수가 '학교운동부 개선을 통한 학교체육 정상화의 길', 오윤선 상명대학교 교수가 '학교현장에서 찾는 여학생체육 활성화의 길'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창립 100주년을 앞둔 대한체육회는 이번 포럼이 한국 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학교체육의 발전적인 정책 논의를 통해 미래 한국체육의 발전방향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